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특집

천안병원, 지방 최대병원 된다

환자 신발 벗겨주는 의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내시경 수술
국내 최초 최첨단 암 진단기 도입
남자간호사 4인방의 유쾌한 '수다'

동행

인생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봐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글_용혜원 사진_오정복
사진배경_부산 다대포 여름 백사장 일몰

CONTENTS

통합 의료원보 Vol.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표지설명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겠다는 전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작가·오진묵



PHOTO ESSAY

동행

Feature

- 02 special Prologue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
- 04 special feature 천안병원 개원 30주년 특집
- 08 issue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내시경 수술
- 10 focus1 남자 간호사의 수다, "체력+섬세함이 강점이죠"
- 14 focus1 국내 최초 최첨단 암 진단기 도입

Confidence

- 16 history 순천향 설립자 서석조 박사 일대기
- 18 special family '영어' 역시 외국 환자에겐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
- 20 field 서울병원 안과 24시
- 24 new medicine1 이제 급속 삽입 환자도 MRI 촬영 가능하다
- 26 new medicine2 디지털 '새가슴' 교정기 세계최초 상용화
- 28 doctor 양승부 교수...인터벤션의학의 '대가'
- 30 knowledge1 극심한 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 31 knowledge2 여름철 동안피부 만들어 볼까?
- 32 visit 순천향 의대는 나의 뿌리이자 근원!

Communion

- 34 people 배우 김남주, "오래 사랑 받는 배우로 남고파"
- 36 doctor recipe 한여름 이열치열 보양식 유부만두전골
- 38 travel 여름밤 걷기 좋은 길, 남산 둘레길
- 40 trend 비아그라 그 이후 '제네릭' 써도 될까?
- 42 world class 수상스키 '데이브구디(DAVE GOODE)
- 44 book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45 information 건강과학 CEO과정 모집

Communication

- 46 news 순천향 뉴스
- 50 alumnus 동창회 알림
- 51 schedule 진료 일정표
- 53 letter of thanks 동창회 광고

〈순천향〉애독자에게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



사람의 평균수명이 이제 80세를 넘었다. 의학기술이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 암, 에이즈, 백혈병, 이제는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 같지 않다. 사람이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 왔지만 의학이 없었다면 그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용히 뒷받침하며 발전해 왔다. 이런 의학의 중심은 무엇일까? 사랑이 없는 의학은 그저 병을 고치는 기술일 뿐이라고 말하는 한 의사의 감동적 이야기다.

글_ 전진용



인술 I, 경청...환자의 마음을 열다

손 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03년 순천향대학 부천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임 교수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다. 마주 앉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임 교수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 섞인 긴박한 이야기를 차분히 경청해 줬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묘약이다.

손 씨는 임 교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다. 치료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생겼다. “인자한 눈빛으로 제 얘기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들어주는 모습에서 신뢰와 믿음이 생겼어요. 아! 고통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됐죠.”

인술 II, 세심함...고통을 벗어난 완치의 길

당시 손 씨는 80을 훌쩍 넘긴 노구였다. 거기에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니 침상에 누워 진료 받는 것조차 버거웠다. 신발을 벗을라치면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정도. 임 교수는 노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손 씨를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겨줬다. 옆에서 손 씨 가족이 만류해도 아랑곳 없었다. 한 두 번하고 말겠지 했던 임 교수의 행동은 멈춤이 없었다. 손 씨와 그 가족은 미안함과 감동으로 뭉클했다고 한다.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신발을 벗겨주고 아픈 다리를 어루만져주며 세세한 증상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족과 같은 포근함이 손 씨와 그 가족 모두 임 교수의 진정한 팬이 되고 마는 결정적 순간의 모습들이다. 임 교수의 인술과 이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은 손 씨, 그리고 그 가족의 집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치라는 기적을 이뤄냈다. 사랑의 인술과 용기와 희망으로 점철된 집념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낸 것.

인술 III 사랑...기적을 만드는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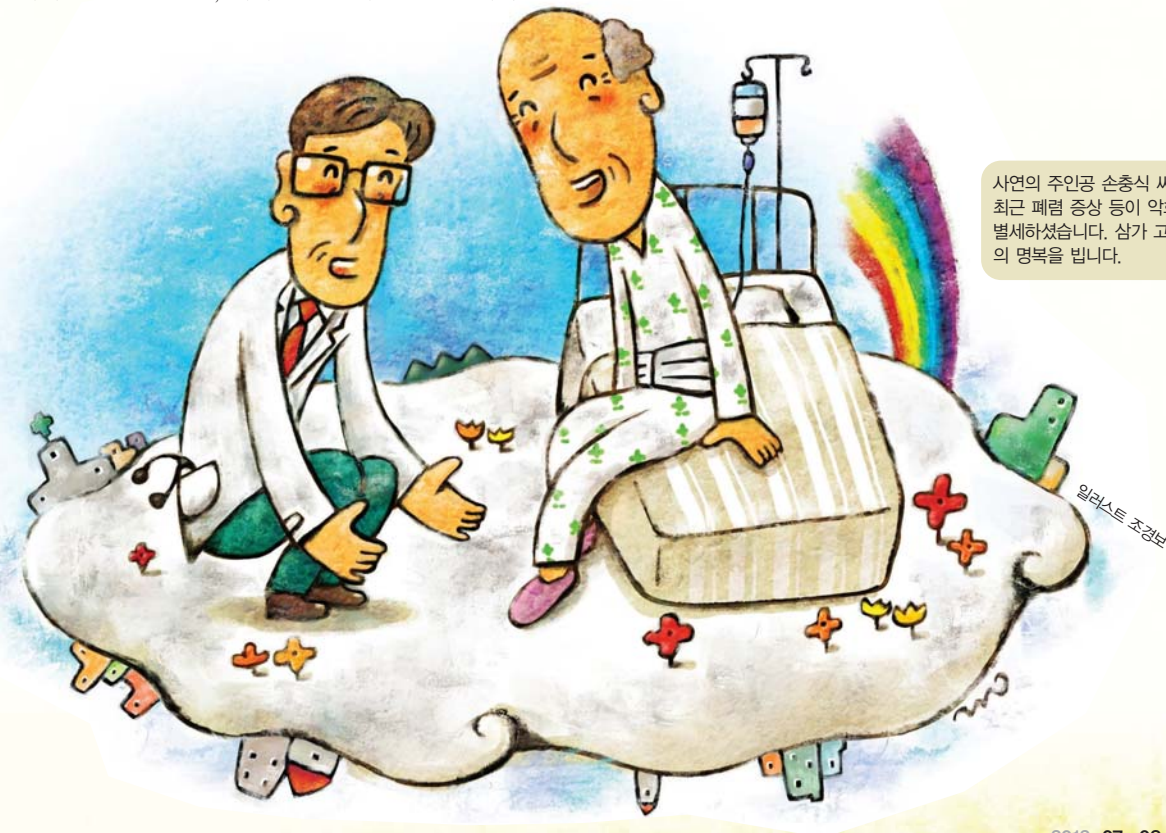
임수빈 교수와 손충식 씨의 인연은 기적을 만들어 낸 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됐다. 극심한 통증을 이겨낸 손 씨에게 안타깝게도 노환에 따른 치매가 왔던 것. 손 씨는 병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임 교수와의 만남이라고 했다. 손 씨는 진료시간이 되면 한 보파리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임 교수는 언제나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모든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

반복된 얘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도 때로는 맞장구를 쳐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바로 지상 최고의 ‘치료제’ 였단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임 교수와의 일화를 병원 곳곳에 풀어놓은 손 씨 덕에 부천병원은 물론, 여타 순천향대학교 병원에게

지 두 사람의 인연이 알려지게 됐다.

임 교수는 주변의 반응에 ‘그저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의료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별난 것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 임 교수는 “모든 환자는 내 가족 같이 소중하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며 “그것이 바로 의사다. 우리 병원의 다른 의사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순천향의 모든 의사는 나보다 더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씨와 그의 가족은 임 교수의 인술 덕분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만을 찾게 됐다고 한다. 당뇨증상이 있는 부인도 그렇고, 집안에 조금이라도 아픈 기색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청, 세심함,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쓰여진 인술을 펼쳐준 임 교수의 파스함을 손 씨와 그의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손충식 씨는 폐렴으로 인해 영면했다. 마지막 그의 가는 길을 지키려 장례식장을 찾은 임 교수를 손 씨의 가족들은 버선발로 나와 맞아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인연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임수빈 교수는 오늘도 제2, 제3의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랑을 전파하고 있다. SCH



사연의 주인공 손충식 씨는 최근 폐렴 증상 등이 악화돼 별세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러스트 조경보

제2병원 건립으로 글로벌 병원 된다

개원 30돌 맞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부권 최대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중기 어젠더를 발표했다. 역점 사업으로 1,200~1,500병상 규모의 초대형 제2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첨단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갖추게 될 제2병원은 단일 건물로는 지방 최대 규모로 이르면 내년 착공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천안병원은 명실공히 서울이남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거듭난다. 글_ 편집부 사진_ 임운석

지난 2012년 7월 6일 오후 6시 30분 천안시 소재 유관순체육관에서는 천안병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1천5백여 명의 순천향 가족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무용 천안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3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병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했다. 천안시 유사 이래 단일 사업장이 주최한 행사로는 최대 규모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진행한 이 행사는 기념식과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성무용 천안시장, 양승조 국회의원, 홍보대사 이봉주 전 마라토너가 유공자 표창을 받았고, 성우배한성씨가 천안병원의 두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기념식 후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티아라, 다비치, 조영남 등 인기가수들과 개그맨 안운상 등이 출연해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이문수 천안병원장이 성우 배한성, 마라토너 이봉주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왼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문수 병원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환영사

“인간적 가치가 최우선일 때 사랑받고 존경받는 병원이 됩니다”

오늘은 1982년 150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으로 시작했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개원 후 꼭 30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천안병원의 개원 30주년을 축하하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모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조용하지만 독심 있는 ‘인간사랑’의 리더십으로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오신 모든 병원 가족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병원이 천안에 설립되어 눈부시게 성장해 온지도 어느덧 한 세대를 지나 30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역에서 인정받는 병원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세계 각국의 환자와 의료진들이 치료와 연수를 위해 찾아오는 세계적인 병원, 충남의 자랑스러운 병원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천향 천안병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성장하여, 믿음직스럽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병원의 오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순천향의 설립자이신故 향설 서석조 박사님께서도 이렇듯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 건실하게 성장한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축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원 3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설립자를 떠올리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 향설 박사님의 굳은 의지와 실천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사랑’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더욱 반듯하고 건강해져야 합니다. 지역 내 최고의 병원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병원, 설립자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병원, 지역과 사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립자의 유지를 완성하고, 순천향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며, 늘 성원해주시는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도 순천향의 일원으로서 순천향 가족과 함께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고객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전 지역사회 의료갈증 해소... 현대식 시설의 충청 최고 병원

1982년 7월 7일, 30년 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당시 지역 주민들의 큰 환영과 기대 속에서 문을 열었다. 그날은 충청지역 장항선일대의 주민들이 숙원을 풀 날이다. 충청은 그동안 조금만 병이 깊어도 대전이나 서울 등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했던 의료사각 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개원초기부터 지역 최초 신장이식, 심장수술 등 거의 모든 큰 수술과 고난도 치료들을 척척 해내며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었고, 엄마 품과 같은 인간적인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 전체를 품어냈다.

서석조 박사의 해안으로 천안시대 열다...

봉명동 언덕에 터 잡아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기업들이 너도나도 수도권에 병원을 지었지만, 순천향의 설립자 서석조 박사는 달랐다.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을 일부러 찾아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길 원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순천향은 상습 침수구역이자 당시 서울지역에서는 의료불모지였던 한남동 지역에 서울병원을, 내륙 최대의 첨단전자산업 기지인 구미공단 지역이지만 이렇다 할 의료기관 하나 없는 구미 지역까지 눈을 돌려 품어 안았다.

박사의 사랑은 이번엔 농촌에 닿았다. 이때부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역사는 시작된다.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던 박사는 충청지역도 의료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상태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면밀히 적지를 물색하던 박사는 그 모든 지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요지인 천안시로 제3병원 자리를 낙점하게 된다. 특히나 아산군 신창면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며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를 키우기로 약속했기에 그의 결정은 더욱 의미가 빛났다. 박사는 봉명동 언덕배기 과수원 밭을 매입해 1980년 11월 중순부터 터를 닦기 시작한다. 공사는 1981년 3월 21일에 시작해서 1982년 6월 14일에 마무리됐다. 현재 본관의 지하 1층, 지상 5층 부분이다. 연건평 2,250평의 당당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탄생했다. 1년 3개월 동안 총 공사비 15억 5천여만 원이 소요된 대형 건설 프로젝트였다.



① 신임생 환영회 도중 저수지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서석조 박사의 뒷모습
② 개원 전 신축공사 모습.
③ 2012년 전경사진-항공사진.



① 노발리스티엑스 치료모습.
② 128슬라이스 PET-CT.

이문수 병원장 인사말

“최첨단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천안병원이 바라보는 더 큰 미래는 순천향대학교와 부속병원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고객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병원을 이룸으로써 2020년까지는 충청지역을 넘어 국토 중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입니다. 이 비전에는 가장 지역적인 병원만이 세계적인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은 중부권 수백만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며, 말 그대로 실력 있는 병원입니다. 실력을 좌우하는 의료진의 우수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그렇다면 이젠 능력입니다.

천안병원은 실력을 능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300억이 넘는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각종 진단 및 치료 장비들을 도입함과 동시에 각종 시설들도 확충 개선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환자중심적인 병원환경을 구축

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충남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최첨단 병원으로, 국내 병원의 현대화를 주도했던 천안병원은 2012년 지금도 최첨단 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병원입니다. 특히 암 치료, 심장병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 세계에 내놓아도 뒤집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천안병원은 1,200~1,500병상 규모의 초대형 제 2병원 건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갖추고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전문센터 중심의 차별화된 환자중심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인 제 2병원은 단일 건물로는 지방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신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제 2병원 건립을 통해 서울이남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개원한지 1개월 20일 만에 모든 병상이 꽉 차는 등 기염을 토했다. 개원 6개월 만에 병동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더 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보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총 74실 350병상 규모의 더욱 당당해진 종합병원으로 변모했다. 1983년 신관에 이어, 1984년 50평 규모의 응급실, 1988년 신별관, 1991년 외래진료관과 응급의료센터, 1996년 건강증진센터 및 연구관, 2004년 교육관, 2010년 암센터 등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지속적인 중·신축을 이어가며 나날이 늘어나는 충청지역과 경기남부지역 일대 지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실히 감당해나갔다.

30년 역사 넘어 명품병원 거듭나

중부권 암치료 거점 병원이 되다

30년이 흐른 2012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암진단 및 치료 실력과 인프라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암센터에는 100억대의 예산을 투입돼 세계최고의 초정밀 다기능 방사선 암치료기인 노발리스 티엑스(Novalis TX)를 들여놓았다.

노발리스티엑스는 미국 FDA가 공인한 세계 최고의 방사선암치료기로 국내에서 천안병원이 두 번째로 도입했으며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토모테라피, 래피드아크 등 모든 최신 방사선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꿈의 암치료기다. 노발리스 티엑스는 가동한지 1년 만에 암치료건수 1만 건을 돌파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도권 지역의 암 전문 진료기관보다도 더 월등한 최신장비와 시설을 갖춰 나갔다. 암치료영역에 노발리스 티엑스가 최강자라면, 암진단영역에서는 128슬라이스PET-CT가 가장 으뜸이다.

병원은 이 기기를 2012년 도입해 가동함으로써 암진단에서 치료까지 세계최고로 무장했다. 갑상선암환자 치료에 이용될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병실인 '옥소치료실'도 2실 조성해 완전한 치료환경을 갖추었다.

병원의 암전문 교수들은 이미 높은 실력으로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다. 탄탄한 협진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해 환자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 다학제 시스템이다. 암 질환에 관련된 모든 진료과가 서로 긴밀한 협조 아래 협력 진료하는 것이다.

창조적 의료문화 선도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개원30주년기념 소망의 밤
중부권 최종 거점 병원

‘함께한 30년, 늘 곁에 있는 순천향’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내건 슬로건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30년 지역민의 사랑과 성원에 성실한 모습으로 보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모습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늘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2012년 중부권 제 1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그렇게 섬김으로 진정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名品 병원을 빚어가고 있다. SCH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내시경 수술

미국 소화기병주간 학술대회 7년 연속 시청각교육상 수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복진현 교수팀

정리 편집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복진현 등)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인 미국 소화기병주간학술대회에서 7년 연속 시청각교육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소화기내시경 수준을 가늠하는 ‘내시경 월드컵(Worldcup Endoscopy)’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최종 10개국에 선정, 경연을 벌여 6위를 기록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는 일본 의사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는다. 일본 의료기기 회사들이 주로 만드는 첨단 내시경을 세계에서 가장 잘 쓰는 의사로 7년째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하다. 조 교수는 “외국 학회에서 일본 의사들을 만나면 내 앞에선 축하한다, 고맙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땐 우리 팀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웃었다.

조 교수팀이 7번째로 미국 소화기병주간 학술대회에서 시청각교육상을 받은 건 바로 지난달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 의사 2만~3만명이 참가하는 소화

기 분야 최대 규모인 이 학회에서 7년 연속으로 시청각교육상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단 2번 받았다. 이 상은 각국의 의사들이 직접 소화기 내시경 노하우를 담아 출품한 교육용 DVD 중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 받은 작품에게 주어진다. 해마다 경쟁률이 족히 10대 1은 된다.

이번 학술대회에도 세계 각국에서 130편의 교육 DVD를 제출했다. 그중에서 조주영교수팀이 제출한 DVD가 1위, 2위를 차지해 전 세계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1위를 차지한 조 교수팀의 DVD ‘소화기질환에서의 조직검사 노하우’에는 첨단기술인 현미경내시경 기법이 담겨 있다. 소화기 내부를 약 1,000배나 확대해 볼 수 있는 내시경이

다. 기존 내시경만으로는 암인지 아닌지 모호해 보이는 조직도 현미경내시경으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조 교수는 “5~7일씩 걸리는 조직검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 수 있고, 정확도는 96%에 이른다”고 말했다.

2위 역시 조 교수팀의 ‘대장암에서의 내시경 치료’ DVD가 차지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의사들이 대부분 내시경에 레이저를 달아 넣고 암 덩어리를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대장암을 치료한다. 그러나 조 교수팀은 내시경에 달린 미세한 칼로 암 덩어리를 그림 그리듯 정확히 도려내는 장면을 이번 DVD를 통해 멋지게 보여줬다. 태우는 게 내시경 암 치료의 기본이라면 도려내는 건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식인 셈이다.

세계 소화기 의사들의 교육지침서

수상작 DVD는 평당 100~150달러에 팔린다. 여러 나라 소화기 의사들이 한국 의료진이 만든 DVD를 사서 보며 공부한다는 얘기가.

조 교수는 “특히 학회 소속 미국 의사들은 수상작을 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병원에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평점으로 인정 받는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올 해까지 최우수 교육비디오로 선정된 내용은 조기 위암, 위 점막하 종양, 조기 식도암, 위식도정맥류, 위식도 협착의 내시경 치료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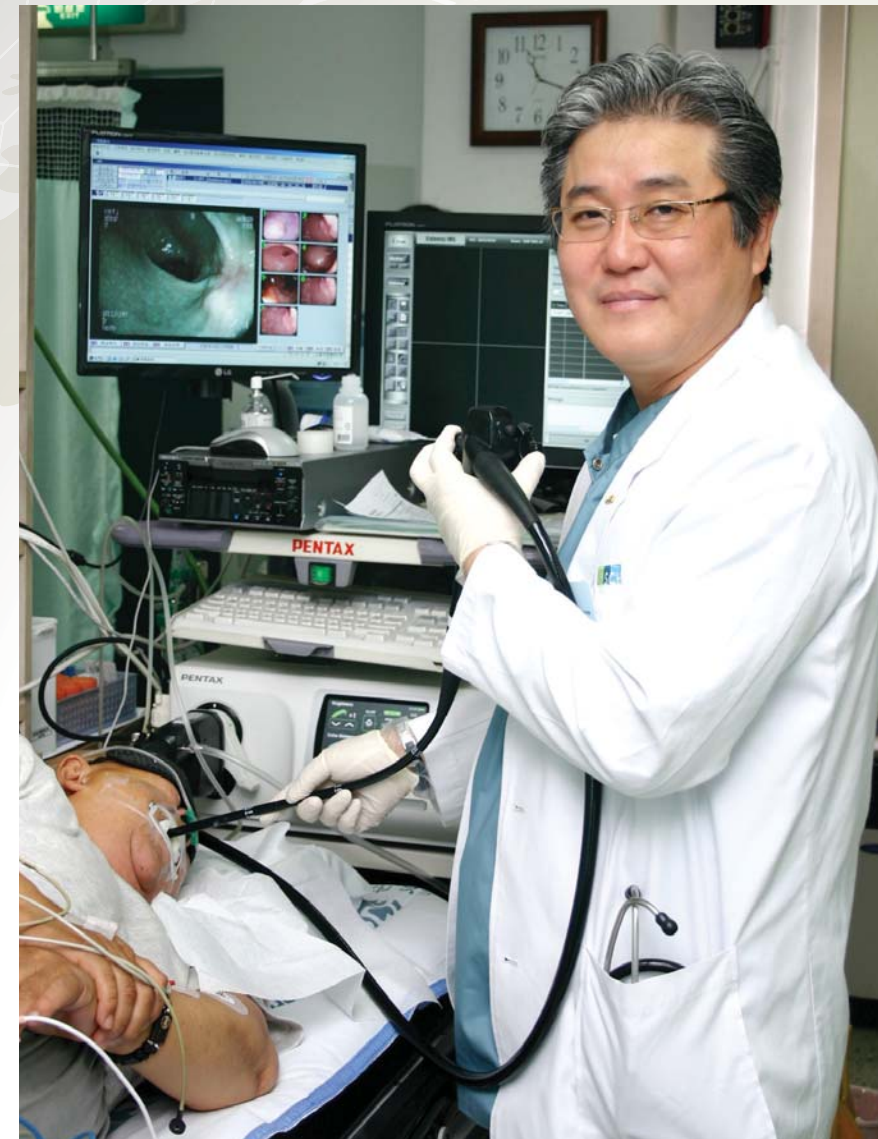
조주영 교수는 “최근 K-팝이나 드라마, 스포츠분야에서 한류 열풍이 강한데 의학 분야에서도 일조를 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내시경의 국산화를 비롯해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주영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소장 및 소화기암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국내외 초청강의 및 국내외 의사 연수 교육, 많은 저서 및 논문 발표, 소화기질환 잡지 발행 등 소화기질환 치료내시경의 분야의 선구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비디오 수상후 조주영 교수와 복진현 교수가 기념촬영하고 있다.(좌) 조주영 교수와 미국 학술대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자 간호사의 수다, “체력+섬세함이 강점이죠”

구미병원 4인방, ‘운명적 선택’...공통점은 ‘섬세함’

참가자 김동희(35세/13년차, 정형외과/이하 김 I) 박재용(34세/8년차, 수술실/이하 박)
김정훈(32세/7년차, 중환자실/이하 김 II) 이인철(28세/3년차, 인공신장실/이하 이)

어느 순간부터 여성의 고유 영역처럼 여겨졌던 간호사 자리에 남성의 모습이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했다. 처음 남자 간호사를 접한 환자와 가족, 심지어 병원 관계자들까지 어색해했다. 남자 간호사의 출현은 그 만큼 극적이고, 센세이션 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남자 간호사 4인방 역시 그랬다.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이들과 유쾌한 수다를 떨었다.

글 조영곤 사진 임운석

남자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김 I = 친척, 지인 등 주변에 간호사가 많았어요. 사실 이 직업 부모님이 권유했습니다(웃음).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평소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라서 큰 거부감 없이 남자 간호사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 = 수능 당시만 해도 전혀 생각이 없었죠. 사실 미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사정 때문에 미대 입시를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를 하다가 간호사를 선택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미대를 포기한 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대학입학지원서에 딱 간호학과만 눈에 들어오더군요. 성격도 한 몫 한 것 같네요. 평소 좀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김 II =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남자들만 득실대는 남중·고를 나왔습니다. 여성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웃음). 순전히 여성의 세계에 탐구욕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 경찰을 꿈꾸는 법학도였습니다. 해군제대를 했는데, 몸이 아파 들렸던 의무실에서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간호장교를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간호장교 덕분에 진로에 대한 변화가 생겼죠.

남자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김 I = 구미병원 1호 남자 간호사였습니다. 환자 뿐 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전혀 간호사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죠.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변변한 탈의실도 없어서 세탁물 모아두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이 = 남자 간호사에 대한 문화가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인지 일부 선입견은 남아 있었지만 초창기 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상황판단과 섬세함을 장점으로 정형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희 간호사(왼쪽)와 수술실 박재용 간호사.

*진료할 때 상당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김 I = 응급실 근무 당사가 떠오르네요. 여자 환자가 이송돼 왔어요. 엉덩이 주사를 놔야 하는데 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소변줄도 마찬가지로요. 간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아쉬웠습니다.

박 = 비슷한 경우인데, 국소 마취를 하고 수술하게 되면 환자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죠. 모든 처지 과정을 다 보고 있으니, 여성에게 있어 민감한 부분을 수술할 때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 민망하고 신경이 쓰이죠.

김 II = 부드러운 남자의 매력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통명스럽다. 가까이 하기가 무섭다는 말을 정말 자주 가끔 듣습니다(웃음).

이 =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로하신 환자분들이 귀엽다고 자주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네요.

요즘 남성 직장인의 성차별 또는 역차별 얘기가 있다. 여러분은?

김 I =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김동희

있어요. 나이 지긋한 선배들의 엉덩이 ‘톡톡’은 일과 중 하나죠(웃음). 어머니뻘 선배들의 다독임이라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김 I = 상황판단능력이 여성 간호사 보다 조금은 뛰어난 것 같아요. 반대로 여성 간호사는 섬세함에서 앞서는 것 같구요. 병동, 외래 등등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니 환자분들도 편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 = 신체적 조건의 우월성 아닐까요. 1일 3교대라는 근무 환경에서 체력적으로 좀 앞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만 휴가 등등 여성들에 비해 다소 취약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작 예비군

훈련이니... 육아휴직 꼭 써야죠(웃음).

이 = 저 역시 신체적 조건에서 오는 유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 등은 모두 남자 간호사 차이가 되지만 말입니다.

김 II = 병동의 활력소라는 생각입니다. 웃음 도우미 등 저 만의 매력이 발산된다고 생각합니다(웃음).



박재웅



이성교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김 I = 13년 전 정원 200명 가운데 유일한 남자였죠.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제는 엄두도 못냈어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입사해 피양새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죠. 당시 간호 커플이었습시다.

김 II = 오는 10월 또 다른 병원 커플 탄생 임박입니다. 구미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간호사 분과 결혼에 골인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 함께 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타 병원 간호사와 6년째 교제중입니다.

박 = 떠올리고 싶지 않네요. 지난해 10월까지 교제했던 분이 간호사였습니다. 휴....

남자 간호사를 위한 복지는 어떤지 궁금하다.

김 II & 박 & 이 = 번듯한 탈의실에서 시원스럽게 옷을 갈아입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사만 5차례 정도. 기숙사 혜택도 기대할 수 없구요.

김 I = 행복한 애기죠. 저 같은 경우는 변변한 탈의실이 없어서 환의, 이불 등을 모아놓은 곳에서 탈의한 적도 있어요. 아~~

이구동성 = 육아휴직제도 등 처우가 개선됐으면 합니다. 남자 간호사 이직 비율이 높은편입니다. 이런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10년 후 모습을 그려 본다면.

김 I = 품위와 인품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해 있을 것 같다.

박 = 10년 후면 책임 간호사 위치에 올라서 후배들을 이끌 것 같네요.

김 II = 간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니 보험심사 등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호사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 = 사실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죠.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람에 대한 말을 나누고 싶다.

김 I = 13년을 근무하다 보니 지역 사회에서 일종의 마스크트가 됐다. 병원을 오가시며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김 II = 중환자실은 생사의 갈림길이다. 꺼져가던 생



소탈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케어하는 중환자실 김정훈 간호사(왼쪽)와 인공신장실 이인철 간호사.

명이 의료진의 정성과 본인의 의지가 결합돼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박 = 김 선배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완쾌돼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다 행복하다.

이 = 신장실의 풍경이 문득 떠오른다. 기약 없는 투석으로 희망을 잃고, 또 힘들어하는 환자가 많다.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특별한 그들의 말말말~

김 I = 구미병원 노후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다. 시설 투자는 마케팅적 요소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김 II = 구미병원 교직원 모두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관심과 격려 부탁한다. 그리고 지면을 빌려 결혼을 앞둔 피양새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절대 용돈 문제 등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대비는 아니다.

박 = 비슷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구미병원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다.

이 = 선배님들이 이끌어 준 덕분에 남자 간호사라는 직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 후배들 역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김정훈



이인철



최첨단 PET-CT 검사로 암 조기 검진을 높인다

국내 최초 최첨단 암 진단 장비 도입

정리 편집부

모든 질병에 있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이는 것은 얼마만큼 해당 질환을 조기에 발견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중요한 조기 발견율은 영상의학의 발전 정도와 비례한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부천병원과 천안병원이 최첨단 PET-CT 영상 장비를 도입해 조기 암 발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ET-CT는 최소의 방사선량을 조사해 극히 작은 크기의 병변까지 찾아내는 안전하고 편리한 암 검진 장비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부천병원은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출시된 New mCT가 장착된 첨단 128채널 PET-CT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이슈가 되고 있다. 부천병원과 천안병원의 PET-CT 가동으로 암 조기 검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천병원, 최첨단 버전 New Biograph mCT 128 국내 최초 도입

부천병원이 올해 5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출시된 'New mCT'가 장착된 첨단 128채널 PET-CT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가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출시된 New mCT가 장착된

진단장비 'PET-CT'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used with Computed Tomography)는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 발생 여부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신 암 진단장비'다. 우리 몸의 대사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PET이라는 장비와 신체 구조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CT를 결합하고, 두 장비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현존하는 의료 장비 중 최고의 '전신 암 진단장비'다.

PET-CT의 주요 활용분야

- 각종 암의 조기진단 : 폐암, 유방암, 식도암, 림프종, 대장암, 두경부암, 흑색종, 자궁암, 근골격계암 등 전신의 대부분의 암을 한 번에 확인
- 암의 감별과 악성도 평가, 암의 전이 여부 및 병기 결정
- 암의 재발 여부, 항암제 및 방사선치료 효과 판정, 치매, 간질 등 신경계 질환 진단
-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진단

가장 성능이 우수한 '128슬라이스PET-CT' 특징점

'128 Slice PET-CT'는 현존하는 PET-CT 중 촬영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안전한 진단기이다.

- '빠르다' 가장 많은 채널수와 가장 넓은 검사 시야로 가장 빠르게 검사한다.
- '정밀하다' 2mm 암까지 찾아내 암의 조기 진단 및 전이여부 확인에 탁월하다.
- '안전하다' 타 장비보다 방사선 사용량이 절반에 불과하다.

- 문의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핵의학과 PET-CT실 ☎032-621-587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핵의학과 PET-CT센터 검사예약 ☎041-570-3535

첨단 128채널 PET-CT는 단 한 번의 검사로 모든 암을 검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인체 내 암의 위치, 발암 장기, 암의 크기, 종양의 악성 여부,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 여부, 주위 장기와의 구조적 관계, 전이 병소를 동시에 진단해 한 번의 검사로 암의 병기를 결정할 수 있다. 암의 병기가 빨리 결정될수록 치료방법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 치료시기를 앞당기고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어 조기 검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재발암 등을 위한 추적 검사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5%에 이르는 높은 검사 정확도는 PET-CT(New Biograph mCT 128)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2mm 크기의 암세포까지 찾아내 몸속에 숨어 있는 암까지 발견해 내는 것은 물론 고해상도 3D 영상으로 판독이 가능해 검사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촬영 시간 동안 피폭되는 방사선량이 기존 장비 대비 크게 감소해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 해 안전하

다. 또한 검사를 받기 전 투여되는 방사선 의약품은 체내 소멸시간이 매우 짧으며 소변을 통해 4~8시간 이내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 검사시간은 단 10~15분 소요된다.

천안병원, 국내 2번째 전신 암 진단 장비 'PET-CT' 도입

천안병원은 올해 초 국내 대학병원에선 두 번째로 '128슬라이스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를 도입·가동했다. 전신에서 발생하는 암을 한 번의 검사로 거의 대부분을 진단해낼 수 있는 128슬라이스 PET-CT는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PET-CT 가운데 가장 최신 기종이다. 가장 많은 채널수를 보유해 환자들에게 빠른 검사 서비스가 가능하고, 2mm의 작은 암 병변까지 구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매우 편리하고 정확한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28슬라이스 PET-CT는 또 다른 기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방사선을 검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양이 적어 더욱 안전한 검사를 제공한다. 암조기진단 외에도 암수술 전 병기확인하고 치료 후 평가에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암진단과 암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로 서울이남 대학병원에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문수 병원장은 "방사선 암치료기 '노발리스 터엑스'에 이어 '128슬라이스 PET-CT'까지 도입함으로써 암진단과 암치료에 있어서 국내 최상의 인프라를 갖췄다"면서 "좋은 장비와 의료진으로 지역의 암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로서비스를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팀워크 · 하모니로 작지만, 강하다

외래환자 매년 15% 증가...망막 수술 분야 최강팀 '우뚛'

대부분 안과라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고작 시력검사나 라식. 그저 조용하고 작은 병원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루에도 10건의 응급수술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안과다. 그 어느 곳 보다도 치열한 곳. 그래서 더 아름다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의 하루를 들여다 본다.

글_전진용 사진_안성욱



- ① 이성진 교수의 망막 수술 모습.
- ② 오전 컨퍼런스 모습. 30여분 넘게 환자와 수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③ 간호사가 검사실에서 수술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 그 중 하나가 바로 눈이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 바로 안과다. 흔히들 안과는 큰 수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력을 잃느냐, 마느냐' 손가락을 다투는 응급수술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된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는 예상과는 달리 가장 바쁘고 치열한 진료과로 꼽힌다. 9시 시작인 일과는 잊은 지 오래다. 안과외래의 시작은 이른 아침인 7시부터다.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지방에 사는 간호사들은 택시를 타고 오는 일이 다반사다. 하루에 많게는 180~190명의 외래환자들이 안과를 찾는다. 하루에 평균 10건 내외의 수술, 시술은 많게는 50건을 소화한다. 7시부터 시작된 일과 중에서 실 틈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 어느 외래보다 활기가 넘친다. 생동감마저 느껴진다. 교수 5명, 전공의 8명, 전문간호사 2명, 외

래간호사 3명, 안경사 1명으로 구성된 안과는 서울병원에서 가장 팀워크가 강하고 조화로운 팀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일까? 서울병원 안과는 매년 15%이상 외래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서 전망이 밝고 투자하고 싶은 진료과 5위 안에 들었다. 8월에는 신축 건물로 자리를 옮긴다. 의료기기 역시 세계 최고만으로 채웠다. 최강 의료진에 이젠 완벽한 공간과 장비까지 갖춘 것이다

07:00 출근을 마친 5명의 간호사들은 당일 수술환자에 대한 체크로 분주하다. 하루 평균 10건의 수술과 그 이상의 시술, 그리고 150명이 넘는 외래환자들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7시 출근도 모자라 보였다.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수술은 망막수술. 망막수술 분야에서 이미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환자에 대한 체크는 더욱 신중해진다. 또한 각막수술, 백내장수술, 유리체절제수술, 사시수술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빡빡한 일정이지만 누구하나 당황하거나 짜증내는 기색은 없다. 오히려 바쁜 와중에서 의사들과 간호사간의 미소 띤 대화가 오간다. 아마도 업무 이야기일 테지만 왠지 즐거워 보이니까 했다.

07:10 수술환자와 당일 스케줄에 대한 체크를 마친 의사와 간호사가 더 분주해진다. 첫 회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전 컨퍼런스 전에 환자를 체크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망막 수술 등의 응급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작은 것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좀 전의 미소 띤 대화가 이제는 진지한 토론으로 바뀐다. 이번에도 업무상 대화겠지만 그 느낌은 좀 전과는 또 달랐다

07:30 회진을 마친 안과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컨퍼런스가 시작된다. 매일 어김없이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진지한 대화들이 오간다. 회진한 환자에 대한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당일 수술에 대한 주의사항도 면밀히 짚고 넘어간다. 빔프로젝트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자료들을 보며 또 다시 대화가 이어진다. 간간히 미소도 보인다. 진지하지만 무겁지는 않다. 안과 진료실 전체의 모습을 이 컨퍼런스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아침 일찍 진료를 보고 가실 환자들을 위해 컨퍼런스 대신 진료를 시작한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안과 외래는 예약없이도 아침 일찍 오기만 하면 기다림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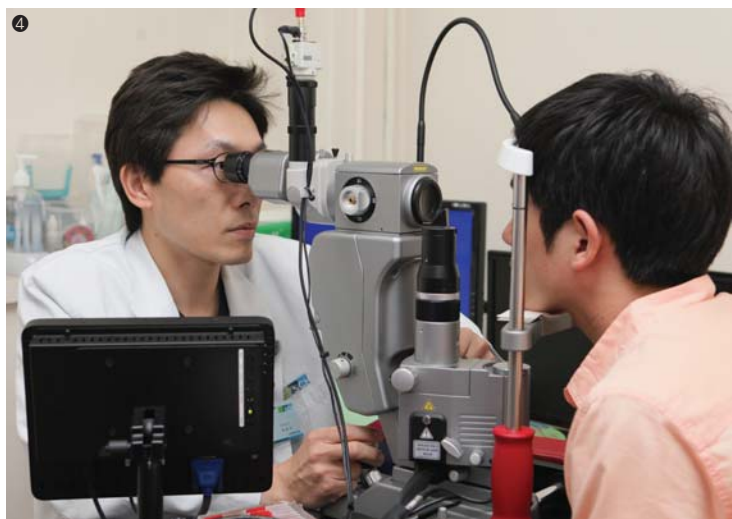
08:30 컨퍼런스를 끝낸 안과 진료실이 다시 분주해 진다. 주요환자에 대한 회진이 또 한 번 진행되고 한편으로는 당일 수술환자에 대한 수술 전 검사가 진행된다. “수술 전 검사는 수술 그 이상으로 중요해요”이지은 안과전담간호사의 설명이다. 많은 대화 없이 각자 익숙한 업무들에 몰두한다. 이미 진료 대기 중인 외래환자들이 복도를 메우고 있다. 멀리 일본에서 온 환자와 간호사가 대화를 나눈다. 일본 귀국 비행기 탑승시간 때문에 진료 시간을 조율하고 있었다.

09:00 예정된 수술과 진료 스케줄이 시작된다. 금일도 7건의 수술과 수십 건의 시술이 진행된다. 한 외국인 환자가 눈 밑에 무언가를 붙이고 앉아 기다린다. “안구 건조증 환자예요. 눈물량을 체크하는 겁니다”한 간호사가 설명한다. 다른 한편 검사실에서는 한 환자가 기기에 눈을맡긴다. ‘각막 지형도 검사’라고 이지은 간호사가 설명했다.

12:30 점심시간의 시작이다. 그런데 안과병동의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자리를 지킨다. “점심식사는 언제하세요?”라는 질문에 하승주 교수는 “다들 먹긴 하죠. 틈틈이 교대로요. 외래환자가 너무 많아 제 시간에 먹기가 힘 들어요”라며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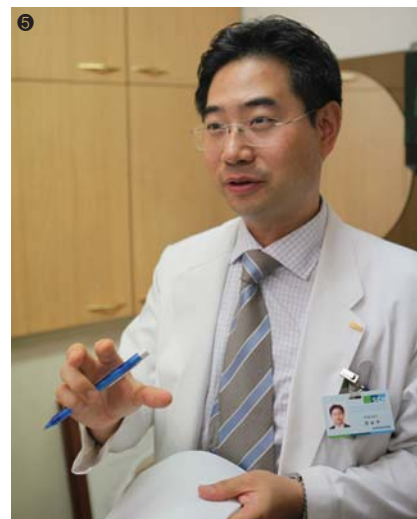
14:30 망막 레이저 치료가 진행 중이다. 망막에 구멍이 생긴 환자를 레이저를 통해 치료하는 과정이다.

- ❶ 외국인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눈물량 체크를 하고 있다.
- ❷ 이지은 간호사가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하고 있다.
- ❸ 오전 회진 모습. 수술 환자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이루어 진다.
- ❹ 망막전문의 최경식 교수가 망막 레이저 치료를 하는 모습.
- ❺ 하승주 교수가 안과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6:15 망막수술이 진행 중이다. 망막전문교수 2명이 365일 지키고 있는 서울병원 안과 는 망막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라 해도 이견이 없다. 그만큼 망막 수술에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이다. TV와 각종 매체를 통해 익숙한 얼굴의 이성진 교수가 직접 수술을 맡았다. 보통 하루에 10회 이상의 크고 작은 수술을 직접 소화한다. 그 중 망막 수술은 하루 평균 4번 정도 한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의 의료장비 는 세계 최고의 것들로 이루어졌다.

17:30 수술을 막 끝내고 내려온 이성진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전공의, 간호사가 한 환자의 회진을 돈다. 하루일과의 끝이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가끔 이 시간부터가 시작일 때도 있다. 서울병원 안과는 망막박리나 눈 외상과 같은 응급 환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수술을 다음날로 미룬 적이 없다. 주말이든, 밤이든, 모두 그 당일날 수술을 하고야 만다. 이에 이성진 교수는 “망막이 생명을 다루는 곳이 아니기에 수술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 몇 분이라도 먼저 해야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망막박리 수술은 당일 수술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니 인터뷰

국내 최고 안과 기틀을 만든 덕장 **박성희** 교수(前 안과과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안과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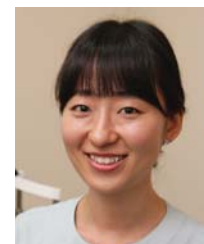
메이저 과가 아닌 안과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을 박성희 교수(전 안과과장)의 덕으로 돌리는 이들이 많다. 박 교수의 제자이자 이제 안과를 이끌어 가는 핵심중 한명인 녹내장 분야의 하승주 교수는 “박 교수님이야말로 지금 안과의 기반을 만든 장본인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병원에서 만난 박 교수는 오히려 모든 공을 후배들에게 돌렸다. “좋은 의사라고 듣는 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의사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안과는 모두가 훌륭한 의사들입니다. 그 들이 이 안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들을 다독였을 뿐 이예요 ”모든 공을 후배이자 제자들 그리고 안과식구들에게 돌리는 박 과장의 겸손한 모습에서 덕장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와 그 팀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인 이성진 교수가 있다는 것이 안과의 힘이고 또한 훌륭한 의사와 식구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안과의 힘입니다”박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간다고 강조한다.

창의적이며 진취적 성향의 리더 **이성진** 교수(안과 과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과를 만들것”



안과 식구들이 창의적이며 진취적이라고 귀땀한 이성진 교수의 목표는 간단명료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과를 만들 겁니다”. 현재 안과 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안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수는 순한 인상과 달리 역시 매우 진취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었다. “좋은 안과라 함은 환자에게 좋아야 하고 의사에게도 좋아야 하며 또한 모든 직원들에게도 좋은 안과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과,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입사 초기인 10년 전, 자신의 목표를 담은 ‘10년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병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가 그랬던 10년의 목표가 정확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안과 식구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 교수는 의학전문지 기고, 라디오와 TV방송 출연 등으로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망막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명이다. 그래서 망막 분야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르다. “하루에 4건 정도의 망막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단 하루도 미뤄 본적이 없어요. 이 교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과는 환자가 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안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라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안과 외래의 분위기 메이커 **이지은** 안과 전담간호사
“할머니의 십자수에 감동 받았어요”



새벽 7시부터 시작되는 이지은 간호사의 얼굴은 항상 밝았다. 쉴 틈 없이 이루어지는 업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안과 식구들 모두 한 가족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외래 환자들로 정말 바쁜 일과지만 안과가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환자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즐거워요” 얼마 전 이 간호사는 한 할머니 환자에게 너무도 뜻 깊은 선물을 전해 받았다. 십자수였다. 시력을 잃었던 할머니 환자가 시력을 다시 회복한 후 감사의 의미로 건넨 십자수가 바로 그 것이었다. “그 어떤 것 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안과 식구 전부를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보람을 느꼈죠”

이제 금속 삽입 환자도 MRI 촬영 가능하다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차장규 교수 임상 연구 통해 입증

정리_ 편집부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고정수술을 받은 김미순(가명, 여 35세) 씨는 갑자기 2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밤마다 열이 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영제를 사용하는 척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권유받았다. 하지만 끝이어 수술 시에 삽입한 금속 고정나사로 인해 제대로 된 MRI 검사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다소 황

당한 설명을 들었다.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에 김 씨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자문을 구하느라 1주일 이상을 소비했다. 그 사이 병세가 악화된 김 씨는 결국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MRI 검사는 그 작동원리로 인해 그동안 체내 금속장치가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일러스트 남동윤



차장규 교수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 전문 분야 : 근골격 영상의학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차장규 교수가 최근 IDEAL 기법을 이용하면 금속장치 삽입술 환자들에게도 MRI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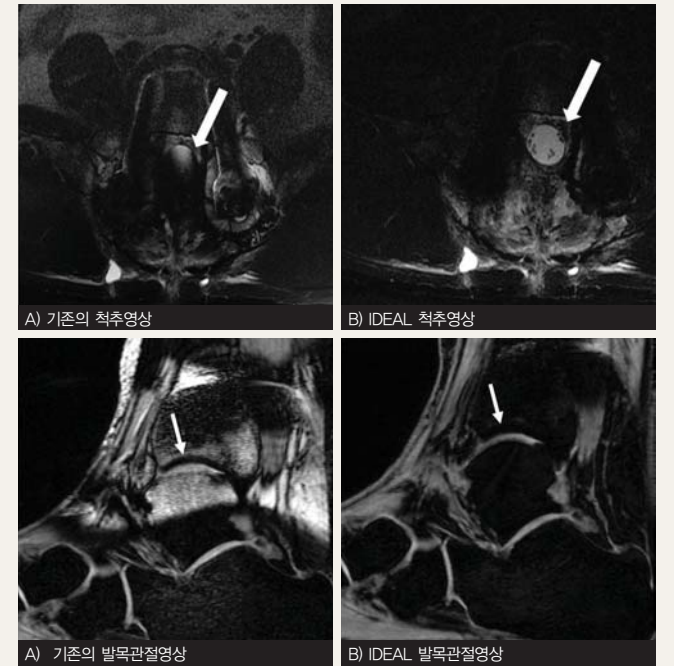
현대과학의 아이콘 MRI ... 금속 삽입술 환자에게는 검사 적용 어려워

MRI는 발명가에게 노벨상을 3번이나 안겨준 현대과학의 아이콘이다. MRI는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연부조직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영상기기다. 게다가 방사선 피폭의 염려도 없으니 암환자처럼 지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이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척추, 무릎, 고관절 등에 금속 고정술이나 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의 합병증 발생시 진단에 가장 적합한 기기 역시 MRI다. 출혈의 시기를 파악하고 고름의 존재 여부 및 진행 정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런 환자들에게 MRI를 권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MRI의 작동 원리 때문이다.

MRI의 원리는 내비게이션의 GPS 탐색 원리와 같다. 큰 자석 통 속에 인체가 들어갔을 때 고자기장에 노출시키면 인체 내의 수소가 각기 다른 주파수를 내보내는 정보를 이용해 영상을 만든다. 그런데 체내에 고정된 금속기구가 존재하면 이 금속이 새로운 자기장을 형성해 조직의 고유 주파수를 교란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금속허상’ 현상을 발생시킨다. 차량이 대도시의 빌딩 숲으로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GPS정보를 받지 못해 엉뚱한 방향을 지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금속허상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학계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대안을 찾기는 했지만 MRI 검사시 염증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영제를 쓸 수 없다는 단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였다.

합병증 조기 발견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속 삽입술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차장규 교수가 MRI 검사에 있어 IDEAL 방법이 금속 삽입술 환자에게 적용된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IDEAL 방법은 MRI의 기존 해상도를 유지하면서도 검사시 조영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MRI의 기존 방법(A)과 IDEAL 방법(B)을 비교한 사진. IDEAL 기법에서 금속허상으로 인한 영상의 일그러짐이 현저히 감소해 조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화살표).

IDEAL(Iterative Decomposition of Water and Fat with Echo Asymmetry and Least-Squares Estimation)방법이란 지방과 수소의 분리를 통한 지방억제로 검사 영상에서의 배경을 검게 만들어 병변을 더욱 흰색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른다. 차장규 교수가 실시한 임상 연구에서 금속기구를 삽입한 척추 수술 환자들에게 IDEAL 방법을 적용시켰을 때 금속허상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척추관내의 신경들과 척추 주위 근육까지도 선명히 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발목 관절의 금속기구로 인한 금속허상도 뚜렷하게 감소시켜 발목 관절의 연골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IDEAL 방법은 약 6년 전부터 개발된 검사법이지만 금속 삽입술 환자들의 MRI검사에 있어 금속허상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국내에서 차장규 교수가 처음이다. 차장규 교수의 논문 『척추 수술 환자에서 금속허상 감소를 위한 IDEAL 영상의 유용성』은 지난해 말 저명 학술지인 Radiology 지에 실렸다. 차장규 교수의 연구로 MRI 검사를 받지 못해 합병증 조기발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금속 기구 착용 환자들의 수술 후 합병증 진단율이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디지털 '새가슴' 교정기 세계최초 상용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 개발... 교정효과 좋아



글 _ 이석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 교수

외모를 중시하는 청춘 남녀들 사이에선 노출의 계절 여름은 가슴을 우람하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런 세태 속에 우리 주변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슴뼈 모양이 잘못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선천성 가슴기형인 '새가슴'이다.

'새가슴'이란 앞가슴이 과도하게 돌출된 질환으로, '구흉' 또는 '돌출흉'으로도 불린다. 약 30%정도는 가족력이 있고, 약 15%정도에서는 허리가 꾸부정하게 휘는 척추측만증도 동반된다. 일반적으로 남자에서 더 많고 선천적으로 발생되지만 성장기를 거치면서 두드러진다. 대부분 어린아이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모양 변화가 심해진다. 대부분의 새가슴 환자들은 특별한 증세를 호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간혹 돌출된 앞가슴



디지털 교정기

새가슴 치료 전(좌) 후(우)

으로 인해 흉벽이 유연성을 잃게 됨에 따라 호흡곤란이나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교정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새가슴은 옷을 입어도 외관상 드러나기 마련이라 대부분 미용적인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 기피 등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도 겪는다.

수술이 필요 없는 '새가슴 교정기 치료'

얼마 전까지 새가슴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앞가슴을 절개한 후 튀어나온 늑연골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앞가슴 빠인 흉골을 골절시켜서 일자로 펴는 '절골술'이 치료의 원칙이었다. 이 방법은 전신 마취, 광범위한 피부절개로 인한 거대 상처 그리고 가슴뼈를 자르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과 합병증, 부작용 등이 만만찮았다. 그러나 2000년 필자가 새가슴 교정기를 개발하여 아시아 최초로 소개하면서 마취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새가슴 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다시 '디지털 새가슴교정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해 새가슴 환자들의 교정치료 효과를 업그레이드했다.

압박 강도 눈으로 확인해 교정효과 '업', 교정기간 '다운'

교정기는 알루미늄 피와 넓은 줄로 만들어져 브래지어처럼 차게 되어 있다. 교정 방법은 교정기를 착용하여 환자 자체의 호흡운동과 근육운동을 조절하여 환자 자체의 힘으로 돌출된 앞가슴을 주변의 정상 가슴위치로 복원시켜 주는 방법이다. 마취, 수술, 입원 등이 필요 없다. 외래에서 검사 후 체형에 맞는 교정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앞가슴 돌출이 복원된다. 착용 후 통증도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개월 만에 교정이 된다. 치료효과는 성인의 경우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훨씬 우수하다.

그 동안 교정에는 과도한 활동 후엔 교정 끈이 느슨해져 압박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약 5년에 걸친 연구 결과 '디지털 새가슴교정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디지털 새가슴교정기는 튀어나온 가슴을 압박하는 금속 띠와 압박 판의 표면에 특수센서와 액정판을 부착한 것으로 액정판을 통해 압박의 강도가 숫자로 표시된다. 액정판에 숫자로 표시된 가슴 압박의 강도를 교정 환자가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압박 효과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압박 효과가 유지됨에 따라 교정효과가 높아져 교정기간도 크게 단축되었다. 기존 교정기로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교정이 디지털 새가슴교정기를 사용하면 5개월 이내로 끝마칠 수 있다. 디지털 교정기 착용과 함께 특수 운동법을 병행시킨 결과 1개월이면 교정효과가 나타났다. 또 새가슴의 반대인 일부 오목가슴 환자들에서도 교정효과를 보았다.

새가슴과 오목가슴 동반 기형 '최소절개술'

간혹 새가슴 환자 가운데 반대 증상인 오목가슴(누두흉, 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간 것)까지 동반된 환자도 있다. 이 경우엔 교정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가슴을 절개하는 큰 수술은 필요 없다. 양측 옆구리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흉벽에 금속막대를 집어넣어 튀어나온 가슴은 눌러주고, 들어간 가슴은 들어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늑연골이나 흉골의 절제를 하지 않고, 또 앞가슴에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흉터도 없다. 이 수술방법은 몇 개월 동안의 새가슴 교정 치료기간을 줄이고자 할 때, 그리고 교정기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가슴기형은 이제 큰 부담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 교정기 치료와 앞가슴 흉터 없는 수술치료 등 진보된 여러 치료방법들 가운데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면 된다. 

양승부 교수... 인터벤션의학의 '대가'

‘자궁근종색전술’ 등 구미병원 지역 한계 뚫고, 전국적 명성

양승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벤션의학의 선두주자다. 특히 자궁근종색전술 등에서 뛰어난 의술을 발휘해 여성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지켜주는 명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지역 병원의 한계를 뛰어넘은 양 교수의 의술은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겸손함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글_조영곤 사진_임운석



양승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켜주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 주는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구미병원 양승부 영상의학과 교수는 의사라는 직업과 현재의 삶에 대한 정의를 이같이 내렸다. 양 교수는 자타공인 영상의학의 한 영역인 인터벤션의학의 선두주자다. 최소한의 절개로 소화기계, 비뇨기계, 혈액투석 동정맥류, 산부인과계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병행해 관련 의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크다는 것이 의학계의 평가다. 특히 자궁근종색전술 등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켜주는 여성 질환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구미라는 지역적 한계를 뚫고 이른바 전국구 의술을 펼치는 의료인 가운데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인터벤션...의학적 가치 높다

양승부 교수가 이끄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영상의학의 한 영역인 인터벤션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자랑하는 분야가 있다. 자궁근종색전술, 산후 출혈, 동정맥류, 인공투석, 풍선성형술 등이 그것이다. 인터벤션의학은 의학의 미래로 가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발전과정 중에 하나다. 사타구니에 2mm 관을 넣어서 혈관을 찾아 들어가 치료하는 방법이다. 수술 후 흉터도 남지 않아 정신적 피로도를 줄여준다.

양 교수에 따르면 인터벤션의학의 최대 장점은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것. 마취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 후 회복 시간도 상당히 단축돼 환자 부담이 훨씬 덜하다. 양 교수는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니 수술 중 대화를 나누며 환자의 긴장감을 덜어주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인터벤션은 의료계의 획기적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의료 환경 제공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삶&철학...“현재에 충실하자”

양승부 교수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이다. 양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터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판에 등재됐다. 특히 전문 진료 분야인 자궁근종 및 자궁동맥색전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2006년과 2007년 아시아·태평양 심혈관 및 중재적방사선학회(APCCVIR)와 아시아·오세아니아영상의학학회(AOCR) 학술대회에 각각 발표하는 등 학문적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양 교수의 학문적 토대를 만들고, 관련 의술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노력은 멈춤이 없다. 수련부장을 겸임해 잠시의 쉴 틈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양승부 교수는 오는 10월 대한영상의학회의 인터벤션기술 등 영어세션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자궁에 발생한 혈관 기형 색전술 등에 쓰이는 기존 색전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찾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기존 치료 물질은 상당히 고가다. 10만원 미만의 색전 물질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접근과 케이스 수집으로 새로운 색전물질 통한 효과 증대를 골자로 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상의학과 인기가 높아졌지만 인터벤션은 영상의학 분야 가운데 3D로 평가될 정도로, 지원자가 극히 적다. 이른바 빅5 병원도 층원에 엄두도 못내는 상황. 양승부 교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콜이 들어오면 수시로 움직여야한다는 고단함이 있다”며 “하지만 의학발전을 위해 후학 양성에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다. 현재에 충실할 때 미래는 당연히 밝은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이 새로운 환자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의사로서 1초, 1분, 1시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싶다”고 피력했다. SCH

배우 김남주, “오래 사랑 받는 배우로 남고파”

외모 · 연기력 · 화제성 등 3박자 갖춘 아줌마 배우

시월드(시택의 신조어)에 입성한 배우 김남주가 제2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KBS2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결혼생활과 일 등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차윤희로 출연해 주말 안방을 사로잡고 있는 것. 김남주의 삶, 그리고 연기 철학까지 집중 해부했다.

글_조영곤



“최근 들어 30대 여배우들의 활약이 대단하죠. 여배우 연기수명이 길어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해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김남주(41)는 시청률 30%대를 훌쩍 넘은 KBS2 주말극 〈넝쿨당〉(극본 박지은, 연출 김형식)에서 외주드라마 제작사 프로듀서이면서 집안에서도 목소리 나는 며느리 차윤희를 연기하고 있다. 김남주는 과거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 등의 드라마를 통해 엄마가 된 여배우도 미니시리즈 주인공을 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김남주가 방송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특하다. 방송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예쁜 40대 여배우로서 미니시리즈나 주말드라마에서 매력 있는 아줌마 역할을 주연급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김남주밖에 없다”고 말한다.

외모 · 연기력 · 화제성 등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지혜로운 젊은 아줌마 역할을 매력 있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드물다는 의미다. 사실 김남주 말고도 문소리, 김지호 등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곤 하지만 김남주 만큼 시청자의 주목을 받기에는 3박자 가운데 하나 정도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배우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 시장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여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나곤 했지만 이제는 여배우들이 결혼하고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남주의 오늘…박지은 작가와의 극적 만남

매력 넘치는 여배우 김남주의 오늘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준 또, 배우로서 자신의 색깔이 오롯이 남길 수 있도록 해준 박지은 작가와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

김남주의 재발견으로 항상 가장 먼저 거론되는 드라마 ‘내조의 여왕’(2009년)이 시작이다.

“박지은 작가가 ‘내조의 여왕’ 때 처음으로 러브콜을 보냈어요. 당시에는 그게 8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이었는데 (해당 드라마의) 코미디 요소가 기존 제 이미지와 달라 망설였어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됐고, 박지은 작가와의 작업은 제게 행운을 가져다주었죠.”

김남주와 박 작가와의 만남은 이후 ‘역전의 여왕’ ‘넝쿨당’ 등 세 작품

으로 이어졌다. “박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은 코믹한 상황을 통해 감동을 끌어낸다는 것인데 주말극에서도 이렇게까지 잘해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 KBS 주말극 제의가 왔을 때 반신반의 했죠.”

사실 넝쿨당에서 김남주가 맡은 배역 차윤희는 상당히 소화하기 힘든 배역이다. 시집살이가 싫어 고아랑 결혼했으나 뒤늦게 남편의 가족을 찾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끌려들어간다.

윤희는 할 말은 하면서도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여우 같은 며느리다. 윤희 캐릭터는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촬영 현장에서 컷 소리와 함께 주부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도 있어요. 이 작품을 통해 직장 여성들의 임신 스트레스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엄마로서 배우로서 노력했을 뿐인데 아직 제가 활약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김남주는 남편 김승우의 내조에 행복한 마음을 전했다. “남편 김승우씨의 내조가 화제라고 들었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죠. 승우씨는 비공식 카메오 캐스팅 디렉터예요(웃음). 박지은 작가와도 친하고, 카메오 캐스팅을 해주면서 한명에 만원씩 달라고 하면서 장난도 쳐요.”

김남주는 마지막으로 시청률을 담보(?)로 공약을 내걸었다. “시청률이 50%를 넘으면 ‘개그콘서트’에 나가서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배우 김남주와 ‘넝쿨당’에 많은 성원 보내주세요.”



비아그라는 10년간 총 18억정, 1초당 6정이 판매된 '슈퍼 신약'이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가 지난 5월 17일 풀렸다. 성분이 비슷한 또 다른 이름의 '비아그라'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복제약 제조 기술이 뛰어난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 제네릭 의약품 개발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_ 한미영 헬스조선 기자

최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우리가 바라는 발기부전치료제'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이 56.5%에 달했다. 부작용 증상은 안면홍조 52.1%, 가슴 두근거림 14%, 두통 11.6%, 소화불량 5%, 현기증 5%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발기부전 환자가 치료제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27.6%가 '이전 약의 효과가 빠르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전 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24.1%, '이전 약으로 발기가 충분히 강해지지 않아서' 20.7%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부작용 때문에 불안하면서도 빠른 효과를 얻고 싶어 했다. 부작용이 적을수록 좋은 약이지만, 안타깝게도 제네릭은 부작용도 카피한다.

발기부전치료제 제네릭(복제약) 등장, 약인가 독인가?

제약업계에서는 '비아그라' 같은 약을 '돈이 되는 신약'이라고 말한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만든 비아그라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다. 1999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후 13년 동안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8년까지 120개국 35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비아그라를 복용했다.

비아그라는 10년간 총 18억정, 1초당 6정이 판매된 '슈퍼 신약'이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가 지난 5월 17일 풀렸다. 성분이 비슷한 또 다른 이름의 '비아그라'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복제약 제조 기술이 뛰어난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 제네릭 의약품 개발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식약청에 시판 허가를 받은 제네릭은 16개사 28개 품목이다.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 생동성 시험을 신청한 곳도 19개사에 달한다. 이 중 CJ제일제당 '헤라그라', 일양약품 '일양 실데나필', 비씨월드제약 '실비에', 한미약품 '팔팔정', 대웅제약 '누리그라', 삼진제약 '해피그라' 등은 이미 시장에 출시됐다.



와 혈관 평활근이 이완해 해면체 안으로 혈액이 들어온다. 혈액이 몰려 들어 해면체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동맥을 통해 들어온 혈액이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 발기된다. 지금까지 출시된 발기부전치료제는 PDE5(Phosphodiesterase-5)효소에 작용하는 제품이다. 평활근을 이완해 혈류 유입이 가능하게 하는 c-GMP를 분해하는 효소인 PDE를 억제해 발기가 풀리지 않게 유지한다.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제피드 등은 모두 PDE5 억제제에 속한다. 문제는 이 치료제들이 PDE5에만 작용하지 않고 다른 PDE효소에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PDE효소는 11가지 타입으로 존재한다. PDE1은 혈관·심장·뇌 등에, PDE6는 망막, PDE11은 골격근·고환 등에 주로 분포한다. PDE1을 저해하면 두통이 나타나고, PDE6를 저해하면 색맹(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PDE11 저해 시 요통이나 근육통, 정자형성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제별 부작용, 어떤 것이 있나?

대표적인 발기부전치료제 부작용은 두통, 안면홍조, 시력감퇴, 근육통 등이다. 이는 PDE5효소뿐 아니라 PDE1, PDE6, PDE11 등 다른 효소까지 억제하기 때문이다. PDE5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야 발기부전치료제의 약효와 안전성이 우수하다. 국내 출시된 발기부전치료제 가운데 PDE5에 대한 선택성이 가장 높은 제품은 제피드다. 제피드 성분인 아바나필 비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아바나필은 PDE5에 대한 선택성이 PDE1 대비 1만 배 높았다. PDE6보다 121배, PDE11보다 1만90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는 PDE1과 PDE6까지 억제해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심혈관계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청력 손상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PDE5억제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을 복용한 남성이 비사용자보다 청력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2배 높다는 것이다. 비아그라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리지널 제품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이기에, 같은 성분으로 만든 제네릭(복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안심할 수 없다. 

Tip

제네릭(Generic)의약품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복제)약을 지칭하는 말로 신약 또는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신약 또는 원개발사 의약품과 의약품동등성시험을 거쳐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말한다. 제약협회에서는 '카피약' 또는 '복제약' 대신 제네릭을 공식용어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시장이 확대되고 제품 수가 증가하면서 제약업체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졌다. 비아그라 제네릭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소비자 이목을 끌기 위해 마케팅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하자', '스그라', '쎄지그라', '오르그라', '오르맥스', '불티스', '헤라크라' 등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제품명을 쏟아냈다가 이름을 바꾸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비뇨기와 전문의들은 비아그라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펼치는 제약업체의 지나친 마케팅 공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짜약이 반을 차지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소비자의 약물 오남용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PDE5효소에만 적용돼야 부작용 적어

성적 자극을 받은 대뇌는 신경을 통해 척수, 골반, 생식기에 지령을 내려 발기를 위해 동맥혈관을 확장하라고 명령한다. 명령에 따라 혈관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고 CTP가 c-GMP로 전환하면서 음경해면체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여성 질환 및 새로운 진료지침 조명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연수강좌 성황
 순천향대의대 내과학교실(주임교수 홍대식)은 6월 17일 오전 9시부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등은 대강당에서 '2012년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연수 강좌'를 개최했다.
 1차의료기관에서 흔히 접하는 여성에 관한 문제의 접근과 대처방안등 최근 새롭게 변화하는 진료지침을 다뤄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복부초음파와 심장초음파에 대한 퀴즈와 '10년 젊어 보이기' 등의 특강도 진행했다.



고교생 진로탐색 박람회 개최

순천향대가 주최하는 진로탐색 박람회가 6월 2일 순천향대 유니토피아관에서 열렸다. '꿈꾸는 대학생들 진로탐색'을 주제로 열린 이 박람회는 고교생의 진로 설정을 돕고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36개 고교에서 8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조정기 입학처장은 "시간대별로 학과 설명회와 체험시간을 나눠 학생들이 2개 학과 이상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전통도자기 사업 부활 이끈다

순천향대가 충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전통 생활도자기 생산자들과 연계해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등 충남의 도자기사업을 특화시킨다. 순천향대(총장 손용삼)는 자연과학대학 5층 RIS센터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단(RIS센터)'를 개설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지역연고산업인 RIS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역 내외의 대학교,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발전역량 결집과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연고(특화)자원을 산업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기여하게 된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네비제닉스와 유전체분석서비스 및 공동 연구 협약

서울병원(병원장·서유성)은 5월 10일 유전체(게놈)분석 회사인 네비제닉스(Navigenics, 한국 에이전시 인시안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검사 서비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타액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뇌종종 뇌동맥류 심장마비 등 29가지 질병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는 특별한 대기시간 없이 30분 정도 금식 한 후에 침을 채취하여 미국 본사로 보내 정밀 분석을 하게 된다. 결과는 3,4주 후에 확인할 수 있다.



위암, 대장암, 간암 등 3대암 수술 1등급 서울병원

서울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암 수술 사망률 평가에서 위암·대장암·간암등 세 개 암의 수술 사망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수술 사망률은 모든 병원이 평균적인 수준의 진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환자의 예측사망율과 병원별 실제 사망률을 비교해 의료의 질을 평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발병률이 높은 세 개 암에 대해 2010년 한 해 수술 실적이 연간 10건 이상인 전국 30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제사망률'과 '예측사망률'을 비교하고, 예측사망률보다 실제사망률이 낮으면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으로 평가하여 1등급으로 구분했다.



텔런트 길용우 홍보대사 위촉 고품격 종합건강증진센터 홍보

서울병원은 6월 15일 인기 텔런트 길용우씨와 기상캐스터 배수연씨를 홍보대사에 위촉하고, 확장 이전 개소 예정인 종합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8월말 개소 예정인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신축 종합건강증진센터는 기존 센터에 비해 2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각종 검사를 '원데이, 원스톱(One Day, One 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서유성 순천향대 서울병원장은 "건강하고 온화한 이미지와 연기력을 자랑하는 길용우씨를 홍보대사에 위촉해서 기쁘다"며 "새로운 품격의 종합건강증진센터와 병원 홍보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과에서 무수혈 수술이란...무수혈외과 심포지엄 개최

서울병원 외과는 6월 30일(토) 병원 내 동문대강당에서 제1회 순천향 무수혈외과 심포지엄 및 환우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무수혈수술을 받은 환자는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에서는 간담체 및 대장암의 무수혈수술과 무수혈 수술시 마취통증의학과와 역할에 대한 강의를 가졌다. 2부에서는 갑상선암과 위암의 수술, 방사선을 이용한 중재적 치료 등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진료협력병원 관계자 건강검진 서비스

서울병원은 6월 23일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협력병의원 원장과 가족 등 16명을 초청해 건강검진을 서비스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비롯해 위,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검진을 받은 관계자들은 "진료 하느라 검진에 특별히 신경 쓸 경향이 없었는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어린이날 · 어버이날 행사 개최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환아들에게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했다. 다양한 체험 이벤트에 병동 환아 약 4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날을 만끽했다. 또한 5월 8일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총 21개 병동 및 인공 신장실에 내원한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봉도 해림원에서 의료봉사 실시

5월 19일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에 위치한 사회시설 해림원에서 사랑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8번째인 이번 의료봉사에는 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영상의학과 등 4개 진료과 의료진 및 간호부, 진단검사의학팀, 약제팀, 영상의학팀, 행정부서 등 교직원 약 30여명이 참가해 시설 이용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검진을 실시했다. 부천병원은 매해 해림원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 각 이용자들은 질환별 진행사항을 의료진들과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고 있다.



'제12차 캄보디아 의사연수 수료식 및 임상연구발표회' 개최

'제12차 캄보디아 의사연수 수료식 및 임상연구회 발표회'가 6월 21일 오후 4시 원대 향설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의사연수를 수료하게 된 캄보디아 의사는 덴 부티(남, 45세), 핑 피잘(남, 44세), 초어 콤포(남, 28세) 등 3명으로 이들은 각각 신경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본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로써 부천병원은 총 42명의 연수 의사를 배출했다.



내시경 · 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2 성료

소화기병센터가 주최하는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2'가 6월 24일 오전 9시 원대 향설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지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내시경·초음파 의료 기술 및 최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의사와 간호사 등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소화기병센터에서의 시연을 강당에 생중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시간으로 현장과의 Q&A를 진행하는 등 현장감을 극대화 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문중호 소화기병센터장은 "내년에는 6월 2일에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3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국제 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다"고 심포지엄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병원 동정

장윤우 교수 / 영상의학과
 5.13 초음파의학회 '국제저술상' 수상

임희역 주임간호사 / 소화기병센터
 5.18 미국소화기기 내시경간호학회에서 포스터 구연 발표

최규연 교수 / 산부인과
 6.23 2012대한모체태아의학회 제 18차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부천병원 동정

장지호 교수 / 안과
 3. 24 미국소아사시학회 Best of Shows상 수상
 백상현 교수 / 영상의학과
 4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측정클럽 전문위원으로 위촉

김태희 교수 / 산부인과
 5. 13 대한폐경학회 청화학술상 수상
 5. 25 대한골대사학회 ASMBR Travel Award 수상
 2012~2013년 세계폐경학회로부터 연구장학금 매년 2만\$ 수혜

이민희 교수 / 영상의학과
 5. 13 대한초음파의학회 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
 신원한 교수 / 신경외과
 5. 1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
 이찬구 전공의 · 이종대 교수(교신저자)/이비인후과
 6. 3 대한평형의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홍대식 교수 / 종양혈액내과
 6. 13 제4회 대한암학회 로수 암학술상 수상
 정재홍 방사선사 / 방사선종양학과
 7월 SCI급 학술지 Medical Physics에 논문 등재
 소화기병센터팀, 미국 유명 라이브 심포지엄에 국내 최초 초청
 2013. 1월 미국 유명 라이브 심포지엄에서 내시경 라이브 시연 예정
 온영훈 교수 / 안과
 6. 4~11, 스페인에서 열린 ISCEV 학회에서 주제 발표

박영립 교수 / 피부과
 6. 13 ~15 중국에서 열린 EADC 학회에서 주제 발표

박춘식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6. 14~24 스위스 · 폴란드에서 개최된 EAACI 2012 학회에서 주제 발표

박재성 교수 / 영상의학과
 6. 21~27 영국에서 열린 유럽 흉부 영상의학회에서 주제 발표

임수빈 교수 / 신경외과
 6. 27 ~ 7. 2 미국에서 열린 KASS 학회에서 주제 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제13차 협력병원 체결식 개최

부천병원 '제13차 진료협력병원 만남의 밤' 행사를 6월 27일 오후 7시 30분 원내 순의홀에서 개최했다. 협력식을 체결한 병·의원은 총 27곳이다. 이번행사에는 김부성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상임이사와 협력병원 관계자 등 주요 내·외빈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부천병원은 지난 11년간 총 500개 병·의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부천병원은 지역 병·의원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부천소방서 119 구급대를 위한 연수강좌 진행

응급의료센터가 주최한 '부천소방서 119 구급대를 위한 연수강좌'가 5월 7일, 8일 양일에 걸쳐 오후 4시 30분부터 원내 향설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부천시내 119 구급대원들의 외상 환자에 대한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첫째 날 •한국형 전문외상처치술 •두부외상의 응급처치 및 사례 •사지외상의 응급처치 및 사례 라는 주제로 최재형 응급의학과 교수, 황선철 신경외과 교수, 이상혁 정형외과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둘째 날에는 •한국형 전문외상처치술 •흉부외상의 응급처치 및 사례 •안면외상의 응급처치 및 사례 라는 주제로 고찬영 응급의학과 교수, 최장우 흉부외과 교수, 박은수 성형외과 교수가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이들 동안 약 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병동 및 향설송원에서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 열려

천안병원 간호부는 5월 3일 병동과 야외쉼터에서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간호부 직원들은 야외쉼터인 향설송원과 어린이 병동을 풍선으로 장식해 축제분위기를 연출하고, 어린이 환자들에게 선물과 먹을 거리를 전달하는 한편,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 환자들을 위로했다. 행사의 모든 이벤트와 선물은 간호부에서 자체 준비했으며, 간호부 직원들은 행사를 위해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기술, 즉석 팝콘과 솜사탕 만드는 법을 배워와 행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등 큰 열의를 보였다.



제 12회 창상봉합 워크숍 열려

천안병원 교육수련부(부장 김여주)는 5월 23일 교육관 2층 강당에서 '제 12회 창상봉합 워크숍'을 열었다. 매년 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워크숍은 외과 술기인 창상봉합술 교육과정. 12년 전 우리병원이 처음으로 시작한 인턴과 간호사 동시교육 프로그램. 성형외과 남두현 교수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30여명의 인턴 및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아산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1명 무료수술

천안병원은 최근 아산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1명에게 무료수술로 건강을 되찾아줬다. 아산시 환희매육원의 이00(남 12)군. 이 군은 평소 만성편도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나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이 아산중고교에서 실시한 개원30주년



기념 의료봉사 현장에 전해졌고 이 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술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수술은 이비인후과 김효진 교수가 맡아 5월 25일 오전 실시됐으며, 이 군은 수술 다음날인 26일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리더십 강화위한 워크숍 개최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천안병원의 중간관리자들이 한데 모여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천안병원은 5월 25일과 26일 1박2일 일정으로 총주 기업은행연수원에서 '개원 30주년 기념 워크숍 「소통과 리더십」'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경영진과 보직 교수, 진료과장들을 비롯해, 간호부, 사무처, 진료지원부서의 계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등 총 104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창조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주제 아래, 2개의 초청강연과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주시 유구읍에서 무료진료

천안병원이 6월 16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서 금년 두 번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유구읍사무소에서 실시된 무료진료에는 300여명의 유구읍 인근 17개리의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모처럼 대학병원 교수들로부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매번 의료봉사에 대규모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동원하는 병원은 이번에도 90여명의 의료진과 내시경, 초음파, 방사선기기, 심전도 등 다양한 검사 장비를 지원해 실효성 있는 진료활동을 벌였다. 내과를 비롯한 13개 진료부스를 설치해 여러 분야의 건강점검이 가능했고, 약국과 영양상담실 운영을 통해 3일치 약 처방과 질환별 영양상담 서비스도 제공됐다.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연수강좌

천안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충청센터(센터장 오명호)가 6월 21일 오후 7시 병원 교육관 강당에서 '제 1차 연수강좌'를 열었다. '신생아 소생술과 태변착색 및 태변흡인 증후군'이란 주제 아래 진행된 연수강좌는 충청지역에서 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수강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한원호, 송준환 교수의 '신생아 소생술'과 '태변흡인 증후군', 김애자 센터 수간호사의 '개인의원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간호교육 계획' 등 3개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총 2점의 연수평점도 제공됐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간호부 [열정愛 빠진 간호사들의 행복한 시간] 행사

간호부는 5월 18일, 향설교육관에서 입사 2년차 4년차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높이고자 [열정愛 빠진 간호사들의 행복한 시간] 행사를 개최, 간호 업무에 임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응원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선후배간호사들의 응원메세지, 간호활동 소감발표, 레크레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파키스탄 의료진, 선진의료 배우러 구미병원 방문

선진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한 해외 의료진의 방문이 구미병원에 이어지고 있다. 5월 23일, 파키스탄 인구보건부 공무원 및 보건의료 전문가 15명이 구미병원을 방문, 감염관리 및 모자보건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병원의 분만실·신생아실을 집중 투어 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모자보건 및 인구와 생식 보건의 성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중국 내몽고 청년 초청, 무료 수술 치료

중병을 앓던 중국 내몽고의 젊은이가 구미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아 새 삶을 살게 됐다. 중국 내몽고 지역에 사는 장OO(21세)씨는 통증과 복부로 배설물이 흘러나오는 불편감 때문에 거동이 어려웠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도 하지 못한 채 10년간 집 안에서만 생활해 왔다. 장씨의 어려운 상황을 현지 선교사로부터 전해들은 구미병원은 장씨를 초청, 정밀 진단 후 유착 된 장기들을 떼어 내고 복부에 생긴 장루를 막는 수술을 시행했다. 장씨는 외과수술 외에 불편했던 여섯 손가락중 하나를 제거하는 기형 교정수술도 받았다.



최첨단 차세대 체외충격파쇄석기 도입

구미병원이 최첨단 체외충격파 쇄석기인 프랑스 EDAP TMS사의 Sonolith Praktis를 도입, 6월 25일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장비는 무통시술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강력한 압력으로 인한 높은 결석 분쇄력이 보강되어 치료 성공률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구미병원 비뇨기과는 연간 500건 이상의 신장, 요관, 방광 결석을 체외충격파를 이용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경피적 신체석술, 요관내시경 수술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치료효과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천안병원 동정

- 이경석 교수 / 신경외과
논문인용건수 전 세계 1위
 - 이용진 교수 / 직업환경의학과
'제 17회 환경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 이종석·이성열·최영진 교수
제 19차 대한의진균학회 학술대회 '폴얀센우수 논문상' 수상
 - 김준혁 교수 / 성형외과
2012,8~2013,7 캘리포니아대학교로 장기 유학
 - 박상호 교수 / 심장내과
5,15~18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PCR에서 연제 발표
 - 이석호·이태훈 교수 / 소화기내과
5,18~25 미국소화기학회에서 연제 및 포스터 발표
 - 이창호 교수 / 비뇨기과
5,18~25 미국비뇨기과학회에서 연제 발표
 - 김영창 교수 / 소아청소년과
5,26~6,2 세계소아신경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 소재완 교수 / 정형외과
5,28~6,2 네덜란드에서 열린 SpineWeek 2012에서 연제 발표
 - 윤석만 교수 / 신경외과
5,29~6,2 터키에서 열린 ACINR에 참석
 - 양광익 교수 / 신경과
6,8~15 미국에서 열린 Sleep 2012에서 포스터 발표
 - 김일영 교수 / 영상의학과
6,11~15 영국에서 열린 ESGAR 2012에서 포스터 발표
 - 김천숙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6,11~19 프랑스에서 열린 ESA 2012에서 포스터 발표
 - 김윤숙 교수 / 산부인과
6,13~16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주산기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 백병준 교수 / 이비인후과
6,18~22 프랑스에서 열린 24th ERS & 31st ISIAN에서 포스터 발표
 - 여승구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6,25~30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종양내과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 김성용 교수 / 외과
6,27~30 일본유방암학회에서 연제 발표
 - 신임 교원 / 7월
정윤호 교수(소화기내과)
- ## 구미병원 동정
- 정태석 교수 / 재활의학과
5,14~18 벨기에 겐트에서 열린 제3차 국제척추과학회에서 연제 발표
 - 김태우 교수 / 심장내과
5,23~29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9회 유럽신장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 양승부 교수 / 영상의학과
5,30~6,2 일본 고베에서 열린 APCCVIR 2012에서 포스터 발표
 - 김명신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6,14~20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EAACI 2012에서 포스터 발표

“규모는 작지만 끈끈한 정으로 뭉친 동문회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삶속에서 누구나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한 삶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주변을 보고 느끼며 되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28(수)일은 순천향의대 동문회가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청주 순천향 동문회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충남의 조치원과 충북의 증평, 보은 지역 등을 포함해 약 30여명의 동문들이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끈끈한 정으로 함께하는 동문회입니다. 특히 이번 동문회는 총동창회 이성근 회장님과 함정식 재정이사님께서 함께 총동창회의 발전과 지역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9대 동창회에서 의미 있게 추진하는 지역동문회 탐방이기도 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동창회 일들을 하고 계시고 바쁜 여건 속에서도 대전, 홍성·예산, 수원과 보령 등 지역 곳곳을 순방하고 이곳 청주까지 내려와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청주 지역 동문들은 적극적으로 동창회 발전에 동참하기로 하였고 강광성 청주동문회 회장님을 통하여 소정의 기부금을 총동창회 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마음을 충분히 담기에는 적은 액수였지만 뜻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식사와 담소가 이어지는 동안 선후배의 만남은 순천향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순천향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순천향이 진정한 명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당당한 순천향인이기를, 그리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선배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청주동창회

총무 전영태(10회)

순천향의대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 현황 (단위:만원)

- 기간 : 2011년 6월 18일 ~ 2012년 6월 20일
- 기금모금 참여 동문 / 모금액 : 572명 / 1억4천583만원

· 기탁자 명단 및 금액

이름(기수)	금액	이름(기수)	금액
이성근(2)	2천만원	김동원(2)	1백만원
유재명(3)	1천만원	이 규(5)	1백만원
백상업(4)	1천만원	반성환(5)	1백만원
함정식(10)	1천만원	김재만(6)	1백만원
원성윤(9)	6백만원	김대익(8)	1백만원
윤석환(3)	3백만원	이호수(8)	1백만원
문종호(6)	3백만원	오경환(1)	5십만
박래경(12)	3백만원	무 명	1백만원
이선학(7)	130만원		

· 약정자 명단(임원)과 금액

이름	직책	약정액	이름	직책	약정액
이성근	회장	3천만원	민영기	부회장	100만원
원성윤	총무	400만원	임수재	총무	100만원
이승대	조직	300만원	이태훈	총무	100만원
김범태	부회장	200만원	박재상	총무	100만원
김연선	부회장	120만원	이성진	총무	100만원
김형철	자문위원	100만원	김대환	장학	20만원
김용익	감사	100만원			

- 기수별 인원 : 14회(기대표 : 노성래) - 57명, 5회(기대표 : 강정협) - 55명
- 지역분담금 - 인천지회(천만원), 홍성 / 예산지회(삼백만원), 보령, 대전(백 만원)
청주지회(백만원), 재경(송파, 강동, 하남)지회(백사십만원)

* 동창회 기금모금에 동문 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 자동이체 바랍니다(월 1만원, 일시불인 경우 연 10만원)
- 개인기부 및 기수별, 지역동창회 찬조금 협조바랍니다.
- 하나은행 662-910022-17605 순천향의과대학동창회 -



Letter of Thanks

“제 인생 모두 바친 순천향에서 이제 정년퇴임해요”

안녕하십니까?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감하는 달이지요.

정년 원지 쓸쓸하고 허전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종착역에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정년이 인생의 첫 걸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생 삶의 터전으로 열정을 쏟은 직장을 떠나는 마음이 어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누구나 언젠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겠지요. 그래도 ‘정년’이라는 영광을 가슴으로 안으며 현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만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던 나의 제2의집, 저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일했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며 일하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마운 분들과 고마웠던 순간들이 주마등 같이 흐릅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감사했던 모든 일들이 실루엣으로 저 자신의 추억의 자료가 되어 남습니다. 큰 족적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눈보라 비바람이 부는 매서운 추운 날과 같은 시간을 인내하기도 하고 따뜻한 봄날 같이 흐뭇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 저 자신에게는 1/30이상의 인생을 온갖 정성을 다한 세월이었습니다.

제 인생살이를 같이 한 순천향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가정을 꾸려주었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두 딸 모두 간호대학을 졸업하게 해 주었죠. 그 예쁜 딸들이 모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직장이에요. 월급이 적던 많던 간에 입사부터 노후까지 보장해 주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꾸려나갈 큰 버팀목이 되어주기까지 하니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저는 이제 순천향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으며,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힘들 때 격려해 주셨던 우리 동료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수는 지적해 주시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우리 동료들, 순천향 가족들 모두 감사드리며, 훗날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큰 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젊음을 바쳐 일했다. 모두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직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성현 드림

인간사랑

지역사회와 더불어 세계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BUCHON

금난새와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순천향인의 하모니

2012 8.22(수) 19:00~21:0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향설대강당

대상 순천향대학교 의학원 교직원, 지역주민 출연진 금난새와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후원 MBC TVK 주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인의 하모니’ 음악회 개최

부천병원이 개원 11주년을 맞아 ‘금난새와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순천향인의 하모니’ 음악회를 8월 22일(수) 오후 7시부터 원내 향설대강당에서 진행한다. 금난새와 유라시안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F장조, 비발디의 사계, 브리튼 심플 심포니 등을 연주하는 가운데 교직원과 지역교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교직원, 지역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하늘 뜻 받들어
인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환자와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합니다.

